

순천 임대아파트 시공사 하도급 이중계약서 논란

S건설, 39억짜리 공사를 73억에 또다른 계약서 작성

공사비 부풀려 분양가격 상승...하도급 업체 민원 제기

순천시 덕연동에 신축중인 임대아파트의 토목시공업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크게 부풀려진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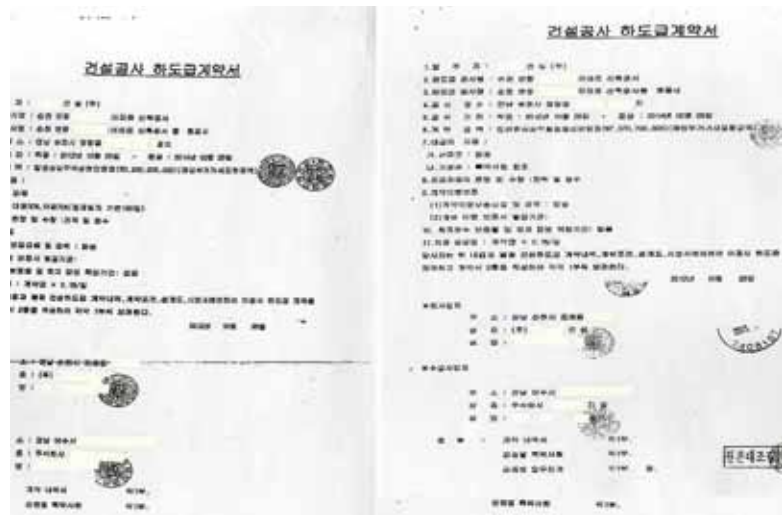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순천세무서에 따르면 S임대아파트의 토목시공업체인 S건설은 지난해 12월25일 A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39억3000만원짜리 계약서와 동일한 공사명의로 73억7070만원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중계약을 체결해 공사비를 부풀

리는 방법으로, 아파트 임대 및 분양 가격을 대폭 상승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임대아파트는 대지면적 4만1781㎡에 지하 2층 지상 13~20층 10개동 757세대 규모로, 오는 2015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84㎡(옛 34평형)의 이 아파트 임대 가격은 1억6500만원, 5년 후 분양가격은 2억3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S업체는 A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대금 결제방식을 대물 30%와 어음(결제기준일 180일)



S건설이 A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39억3000만원짜리 계약서(왼쪽)와 동일한 공사명의로 73억7070만원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70%로 하기로 했으나 또 다른 계약서(15%), 어음(37%), 현금(48%)으로 작성해 기성금 지급을 대물 하겠다고 변경하는 등 하도급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하도급·재하도급 업체들은 대금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원청업체에 항의하는 한편 공정위와 순천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민원이 접수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명시돼 있는 어음지급 기일에 연장 어음 할인료를 동시에 지급했다면 법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순천세무서에서도 같은 민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S건설 관계자는 “자료를 맞추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며 “문제가 제기된 뒤 세무서에 자진 신고했으며 공정위와 세무서 등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잘 뚫린 임도... '힐링숲길' 열렸네

진도 의신면 사천~옥대 2km 준공

진도군이 지난해 착공한 의신면 사천~옥대간 임도 2km를 최근 준공했다. <사진>

이 길은 진도군 의신면 주민들이 사천리를 거쳐 진도읍으로 가는 지름길로 5억원의 예산을 투입, 고즈넉한 '힐링 숲길'로 재탄생했다.

임도는 최근 입입 경영과 산림보호는 물론 숲길 걷기, 산림문화 체험, 산악자전거 및 트레킹 등 다양한 운동

과 체험의 코스로 이용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까지 진도읍 공설운동장~구 사천관광농원 구간의 임도를 수리봉과 첨찰산을 잇는 임도와 연결했으며, 올해에는 의신면 중굴-임회면 광전간 임도를 착공해 내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군은 내년에는 석현-첨찰산 구간, 봉상-여귀산 구간 등의 임도를 계속 개설하기로 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제일모직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제일모직 여수사업장이 지난 17일 신기동 제일모직 사택 복지관에서 김장김치 750포기를 담궈 독거노인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지역 내 300세대에 전달했다. 결연을 맺은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가정 12세대에는 생활지원금도 함께 지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여수시 “복지사각지대를 찾습니다”

내년 1월 29일까지 발굴·지원사업 추진

여수시는 18일 “겨울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달 29일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 기간 동안 전기·수도·가스요금·건강보험료 체납가구, 기초

생활보장 수급 탈락 및 제외자, 창고·공원·교차·화장실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중증장애 및 질병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점 조사를 실시한다. 발굴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

와 의료, 주거, 교육, 연료비, 전기요금 등 공적지원과 민간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후원물품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 말까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의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한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신안 도서지역 주민 위한

'찾아가는 운전면허' 협약

郡-전남운전면허시험장

신안군은 18일 “지난 17일 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과 도서지역 '찾아가는 운전면허'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안 도서지역 주민들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교실에 참가해 현장에서 직접 필기시험을 치르

는 출장시험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서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자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해도 한 번에 필기시험을 통과하기 어려운데다 배를 타고 목포로 나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군은 교육 수요 조사를 실시해 필기시험만이 아니라 기능시험까지 볼 수 있는 'One-Stop 운전면허 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신안=이성선기자 sslee@

순천 월등면 송치마을 음식점에 '소방 우수' 현판

순천소방서 승주119센터

순천소방서(서장 이기춘) 승주119안전센터는 지난 17일 순천시 월등면 송치마을 음식점 등에 현판을 부착했다. <사진> 이날 현판을 부착한 업소들은 주요 평가항목 중 소방·건축·전기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 여부, 화재 발생 여부,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 시행 여부,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적정 여부 등에서 모두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들 업소들은 앞으로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된다.

송치마을 대표 송국현씨는 “순님이 안전한 장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영업의 기본”이라며 “다중이용업소 우수업소로 선정돼 기쁘고 앞으로도 소방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소방서 측은 평소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 업소를 발굴해, 각종 소방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다. 김길중 승주119안전센터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은 영업주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예정영기자 yjy@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금매”

1층상가 - 25평

- ▶ 정문코너, 편의점 임대 중 (보3천만원에 월 125만원)
- ▶ 시세 2억 5,000만원 정도
- ▶ 급매 1억 7,500만원

13층 - 오피스텔

- ▶ 53평, 주거겸 사무실
- ▶ 양동/하천쪽, 전체 올수리
- ▶ 시세 2억 5,000만원 정도
- ▶ 급매 1억 5,500만원

10층 - 오피스텔

- ▶ 29평, 주거겸 사무실
- ▶ 하천쪽, 전망좋은
- ▶ 시세 1억원 정도
- ▶ 급매 6,500만원

회사 사정상 매매함

H.010-4667-9300

경매

- ▶ 투자 하실 분! 1억원 이상
- ▶ 비법 배우실 분! 1,200만원
- ▶ 배우면서 투자 가능
- ▶ 단독/공동투자 가능
- ▶ 엔피엘/특수물건만 취급

(주)오천경매 H.010-3605-5000